

생활 표현의 고시조 연구*

전 재 강**

<국문초록>

사대부 계층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시조에 삶의 물질 토대인 구체적 생산의 현실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생산 관련 생활은 사회 체계의 필연적 근거인데, 생산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시조를 이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일은 시조 작품과 작가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생활을 다룬 시조의 작가는 크게 유명씨와 무명씨로 나누어진다. 유명씨는 사대부와 평민 가객, 무명씨는 사대부와 평민 가객, 시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14-17세기에는 사대부 작가가 중심이고 18-19세기에는 평민 가객이 새로운 작가층으로 부상하여 사대부 작가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평민 가객이 우위를 점하고 무명씨가 대거 참여한다. 다음으로 시적 자아의 입장에서 유명씨의 14-17세기 작품에 나타난 시적 자아는 촌부, 일을 함께 하려는 농부, 일을 시키는 상진, 실제 일하는 농부 등으로 되어 있고 18-19세기 작품에는 전 원인, 구경꾼, 일을 하거나 원망하는 농민 등이 중심이다. 이는 구체적 생산 활동이 점차 사실적으로 표현돼 가던 추세와 반영이다. 무명씨의 작품은 유명씨와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상업 활동을 하는 시적 자아의 등장이 특이하다. 생활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에서 14-17세기 작품에는 논밭갈이, 산나물 캐기, 벼베기, 풀베기 등 여러 생활을 한 작품 안에 포괄하여 표현하는 작품이 많이 나타나며 관념적 용어에서 구체적 생활을 구어로 표현하는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장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순서로 많이 사용된다. 18-19세기 작품에 나타난 생활은 물건 매매, 산전과 수전의 개간, 벼찌기,

* 이 논문은 제41차 한국시조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21세기 시조문학의 현재와 그 전망」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임. 당시 자세한 토론을 통하여 논문 완성에 도움을 준 권오경(부산외국어대학교), 고순희(부경대학교) 교수, 사회자로서 보충 질의로 도움을 준 조규익(숭실대학교) 교수께 감사한다.

** 안동대

물푸기, 가림주구 등 매우 구체적일 일들을, 하나씩 각각 한 작품 내에 집중적으로 구체적 생활에서 쓰는 구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주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표현한다. 무명씨 작품에 표현된 생활의 종류는 유명씨 작품의 경우와 비슷하나 논밭갈이, 김매기, 벼 베기 등의 전통적 일반 생활에 옷 만들기, 물건 장수와 같은 구체적 생활이 부가적으로 더 표현된 점이 다르다. 표현 방법은 유명씨 작품의 전대 선례에서 점차 후대의 선례를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며 문장 형태에서는 명령문, 명령문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핵심어 : 생활 표현, 작가의 사회적 성격, 시적 자아, 사대부, 평민 가객, 시정인, 촌부, 전원인, 농부

1. 서 론

문학은 사회의 반영이다. 다양한 문학 장르 가운데 시조나 가사가 조선 시대 시가 장르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논자들의 상식이다. 특정 장르나 작품의 성격에 따라 그 표현하는 주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초월적 道家 思想이나 수행을 앞세우는 佛敎 思想조차 시조의 유흥적 성격 때문에 풍류적 정서 표현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¹⁾은 그 구체적 예이다. 시조가 도가와 불교 사상을 본질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시조 자체의 성격과 함께 시조 작가들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과도 관련이 깊다. 시조 작가의 중심층이었던 사대부들에게 유교를 제외한 여타 사상은 심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유교 사회의 구체적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1) 줄고, 「불교 관련시조의 사적 전개와 유형적 특성」, 『한국시가연구』 제9집, 2001. 2. pp.337-361.

줄고, 「도가 관련 시조의 작자와 주제 문제」, 『어문학』 제73집, 2001. 6. pp.445-470
참조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들이 시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풍류 생활이나 유교 사상, 훈민, 학문, 송축 등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사대부가 당시 사회의 상층인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하부 구조인 농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 생산의 생계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시조에서 다루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생산의 주업은 농업이었고 그와 관련된 수공업이나 상업은 부차적 산업이었다. 본고에서는 생산의 중심을 차지하던 농업 생산 활동을 비롯한 수공업, 농촌의 일상 활동, 상업 행위 등을 생활로 보고 이를 표현하는 시조 작품²⁾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작업은 시조에 생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역으로 시조의 생활 표현 방식을 살핌으로써 시조의 구체적 성격을 다른 방향에서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생활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따라 시조 장르나 하위 개별 작품의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구체적으로 생활을 다룬 시조 작자들의 시대적 분포와 신분, 문학 활동, 행적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다음은 작가와 연관하여 작품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입장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러한 작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2) 여기서 생활이란 생계 활동을 줄여 쓴 말이다. 생계활동 자체나 생계 활동과 깊이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고기를 잡는 어로 행위도 중요한 생산 활동(어업)의 하나인데 어부 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은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기존 논의에서 시조에 나타난 어로 행위가 假漁翁의 자연 풍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미 구체적 성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작품에 나타난 생활의 구체적 내용들은 본 논문 제4장에서 실제 작품을 통하여 다루고자 한다. 『한국시조대사전』 상·하(박을수, 아세아문화사, 1992.)에서 해당 작품을 歌番과 함께 가져 왔고 필요시 각 작품이 실린 원전을 참고하였다.

2. 작자의 시대적 분포와 성격

생활을 표현하는 고시조 작가는 먼저 유명씨와 무명씨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 전체 해당 작품 가운데 무명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작품을 창작했으나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유명씨 한 작가의 작품보다 무명씨 전체 작품 수가 더 많아서 무명씨의 성격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무명씨의 경우 구체적 단서가 없기 때문에 작가의 성격을 작품 분석을 통하여 역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⁴⁾

유명씨 작품의 경우 작가는 몇 가지 점에서 특성을 보인다. 먼저 작가의 시대적 분포에서 14, 15세기서부터 생활시조가 많이 나타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 17세기에는 양반사대부가 작가층의 중심이었고, 18세기에는 여항인들이 새로운 중요한 작가층으로 등장하여 활동한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사이에는 다시 양반 사대부들이 중요한 작가층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명씨의 경우에는 작품의

-
- 3) 생활을 다루는 시조의 작가들이 가지는 전체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혀 볼 필요가 있어서 작가를 유명씨와 무명씨로 구분하여 다루려 한다. 이는 작가 성격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생활 시조 전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무명씨의 작품은 유명씨의 작품과 유사한 경우와 이질적인 경우가 다 나타났다. 유사한 경우에는 생활시조의 중심 작가층인 양반사대부나 평민 가객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질적인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성격을 엄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4) 유명씨 작품을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유명씨 작가와 연관하여 살피고 여기서 얻은 판단을 무명씨 시조 작가의 성격을 밝히는데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무명씨가 증가하고 유명씨가 줄어드는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살필 수도 있다. 무명씨가 후대로 오면서 증가한 이유를 파격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면서 고의로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숨겼다거나, 유명씨의 중요 작가층인 양반이나 평민 가객들의 시조 문헌이 전하지 않거나 많이 발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시조 문학 전체와 관련되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성격상 드물게 17세기의 작가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18, 19 세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이는 예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이른 시대 작품으로 보이는 전원 한정적 작품이 일부 있고 구체적 생활을 읊은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씨 작가의 수가 적어지는 18, 19세기에는 무명씨가 중요한 작가층으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14-17세기에는 양반 사대부 작자가, 18세기에는 여항인 작자가, 19세기에는 무명씨와 양반 사대부 작자가 주로 활동했다고 할 수 있다. 세기별로 작자의 출현 빈도수를 보면 15세기와 19세기에 생활시조를 창작하는 작가의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고 16, 17, 18세기에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했다.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시기인 16, 17, 18세기 가운데 16,17세기에는 양반 사대부가 주된 작가층이고 18세기는 여항인과 무명씨가 중심 작가층이다. 작가가 몇몇만 나타나는 15세기는 양반사대부가, 19세기는 무명씨와 양반 사대부가 작가층의 중심을 차지했다.

작가의 이름과 생몰 연대, 신분적 성격을 세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의 시대적 분포와 성격⁵⁾

	해당 작가	성격 유형
14-15세기	황 희(1363-1452)	양반사대부
16-17세기	주세붕(1495-1554), 정 철(1536-1593), 조존성(1553-1627), 김득연(1555-1637), 신계영(1557-1669), 박인로(1561-1642),	양반사대부

5) 생몰 년대를 기준으로 작가를 각 세기에 배속시켰고 생몰년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생존 시기 왕의 집권기로 활동 시기를 잡아 해당 세기에 포함했다.

	이덕일(1561-1622), 김광옥(1580-1656), 윤선도(1587-1671), 이명환(1595-1645), 이중경(1599-1678), 이휘일(1619-1671)	
17-18세기	남구만(1629-1711), 안서우(1664-1735), 이정소(1674-1736), 김유기(1674-1720肅宗朝), 김천택(1687-1758), 김수장(1690- ?), 김우규(1691- ?), 이정보(1693-1766), 무명씨	양반사대부 여향인 무명씨
18-19세기	무명씨, 이정진(1724-1775英祖朝), 김진태(1724-1775英祖朝), 위백규(1727-1798), 조황(1800-1833純祖朝), 이세보(1832-1895),	무명씨 여향인 양반사대부

앞의 도표에서 작가의 시대적 분포나 성격을 개략적으로 논의했으나 생활표현의 시조를 작자 개인의 이력이나 그들이 남긴 시조 문학 전반의 성격과 연관하여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15세기 작가인 황희는 영의정을 역임한 당당한 양반 사대부인데 비하여 16-17세기에 등장하는 작가들은 그와 다른 성향을 보인다. 주세붕, 정철, 신계영, 이명환과 같이 높은 관직 생활을 하며 양반 사대부로서 손색없는 생애를 살아간 인물도 있으나 김득연, 박인로, 이중경, 이휘일과 같이 신분은 양반이지만 출사하지 못하고 향리에 머물며 양반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윤선도와 같이 향리에 은거는 하였으나 물질적 부를 바탕으로 안정적 생활을 하면서 여유를 가진 작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창작한 작품 역시 작가들의 출신 성분과 관련이 깊다. 황희가 전원을 노래하는 연시조 <四時歌>에서 생활을 담았다면 주세붕, 정철, 박인로는 훈민가계 연시조에, 조존성, 김득연, 신계영, 김광옥, 윤선도, 이중경은 전원한정의 연시조 안에, 이휘일은 농촌의 생활을 담은 연시조 안에 각각 생활을 노래하는 시조를 추가하였다. 생활을 노래하는 현실적 이유가 전가의 한가함을 구가하거나 지배층이 농업 생산을 증대

하기 위하여 교화하거나, 전원한정을 표현하거나, 농민의 생활을 표현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17-18세기에 이르면 작자의 성향이 더 다양해진다. 앞 시대의 두 가지 형태의 작가층에 여향인과 무명씨라는 새로운 작가층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신분상으로 양반은 아니었으나 사회 물정에 밝고 구체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얻은 중인 가객들은 양반들의 놀이에 흥을 돋우는 연행자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⁶⁾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성장한 시민 계층의 요구에 따라 가창보다는 창작을 주로 하는 무명씨 작가⁷⁾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객층과 무명씨들은 삶의 과정과 출신상의 성격 때문에 다양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시조에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남구만이나 안서우 두 사람이 전대의 전원 한정적인 시조 전통을, 이정소 한 사람만이 훈민가계 시조의 전통을 이어서 앞 시대에 비해 전원한정, 훈민가계 시조가 생활을 노래하는 전체 시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 대신 김유기, 김천택, 김수장, 김우규 등 가객층과 무명씨 계열의 작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양반사대부도 이정보의 경우와 같이 생활을 유희적 분위기에서 노래하는 작가가 나타나기에 이른다.

18세기와 19세기 사이에는 양반 사대부 작자의 성격이 앞 시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 시대 사대부 작가들 중에는 이세보와 같이 일부 유한층 출신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산 사람도 있으나 위백규, 조황과 같이 대부분은 향리에서 양반의 지위를 겨우 유지하며 곤궁한 생활을 하던 실세한 양반들이 작가의 중심층이었는데 두 부류 공히 전원 한정적

6) 조동일, 「9.8.4. 전문가객의 작품」, 『한국문학통사』 제3권 제4판, 지식산업사, pp.316-321 참고

7) 조동일, 「9.8.5. 사설시조의 유래와 특성」, 『앞의 책』 p.325 참고.

성격의 작품을 창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객인 이정진, 김진태가 18세기에 주로 활동하고 19세기에는 생활을 담은 가객의 작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양반 사대부와 가객의 창작 활동이 줄어든 자리에 무명씨의 활동이 바로 앞 시대에 비하여 더 강화되었다. 이 시대 가객은 앞 시대 가객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명씨의 참여는 더 증대되고 양반 사대부 작가는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가객들이 풍류적으로, 무명씨가 현실적 구체적으로 생활을 노래했다면 유한충이든 한미한 계층이든 양반 사대부 작가는 더 이상 전원을 한가한 정서 표현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농민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과 勤苦한 생활을 함께 하거나 연민하는 작품을 남겼다. 이들 사대부들은 백성과 함께 하는 입장에서 농촌을 노래하기도 하고 백성의 곤궁한 삶을 연민의 대상으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상 생활시조를 읊은 작자의 시대적 분포와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생활을 다룬 시조가 미약하나마 꾸준히 발표되었다. 작자들은 16,17,18세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고 19세기로 내려오면서 유명씨 작가는 다시 줄어들고 무명씨 작가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작가의 구체적 성격에서는 15세기는 벼슬을 지내고 여유를 가진 상층의 양반이 작가였고 16,17세기에 오면 득세한 양반과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지위가 낮은 한미한 양반들이 동시에 작가로 활동했다. 또한 새로운 작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항인이 중요한 작가층으로 나타났다. 18세기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18세기 말에는 무명씨와 한미한 양반이 주된 작자로 등장했다. 19세기에는 여항인이 사라지고 무명씨와 한미하거나 유한한 양반 사대부 작가가 활동했다.

3. 시적 자아의 입장

시적 자아의 입장은 작가들의 현실적 입장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작가들의 사회적 신분이 양반사대부와 여향인, 시정인⁸⁾으로만 돼 있는데 비하여 시적 자아는 작가가 처한 구체적 현실이나 작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나타난 시적 자아의 입장과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大棗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벼 뵈 그르혜 계는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채장스 도라 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1189)⁹⁾
 (黃喜, 주씨본 해동가요 324)
- (2) 오늘도 다 새겨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밋여든 내 논 점 밋여 주마
 올 길헤 뽕 따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2907)
 (정철, 경민편경술을축본13, 칠월본13, 훈민가16-13, 無情農桑)
- (3) 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저 잇다
 小園 桃花는 밤 비에 다 띄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하야라(2707)
 (신계영, 田園四時歌10-2: 春)
- (4) 여름날 더운 적의 단 짜히 부리로다
 밧고랑 밋자흐니 썸 흘너 짜희 듯네
 어스와 粒粒辛苦 어니 분이 알으실고(2849)
 (이휘일, 존재집, 저곡전가팔곡 기삼: 夏)

8) 무명씨 작가의 구체적 출신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으나 기존의 일반 양반 사대부, 평민가객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18세기 부를 축적하며 경제적으로 새로 성장한 시민이 무명씨 작가에 포함될 수 있는데 신분적으로 낮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일정한 부를 가진 이들을 시정인으로 일컫고자 한다.

9) 박을수 『앞의 책』의 歌番이고 이하 동일하다.

(1)에는 대추와 밤이 익고 떨어지는 가을에 벼를 수확한 눈에 게가 나오고 채 장수가 돌아가는 농촌의 정경이 그려져 있다. 가을의 계절적 현상을 바라보며 잠시 여유를 가진 촌부가 시적 자아로 등장했다. 농사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으면서 시골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소일하는 사람임¹⁰⁾이 분명하여 시적 자아를 촌부로 볼 수 있다.

(2)의 시적 자아는 논매고 누에 먹이는 농민이다. 논매기와 누에치기라는 여러 가지 일을 공동으로 많이 하고자 시적 자아는 일터에 나가고 누에치기를 함께 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남을 도우려는 의지를 더 보태서 그 요구에 이웃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시적 자아는 농사를 주도적으로 지으려는 농민이다. (1)에 나타난 시적 자아가 농사가 마무리되고 얻은 휴식을 한가하게 즐기는 촌부라면 (2)에는 논매기와 누에치기라는 구체적 농사 행위를 실행해 보이고 있어 농부가 시적 자아이다.

(3)에는 이와는 또 다른 시적 자아가 등장했다. 초장과 중장에서 봄의 정경을 제시했다. 그런데 시적 자아의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는 종장에서 (1)(2)의 경우와는 다른 면모가 드러난다. 아이를 불러 소를 먹이고 논밭을 갈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모는 이 작품의 작가가 남긴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이를 시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의 시적 자아이다. 하인을 부려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땅을 가진 상전이 바로 이 작품의 시적 자아이다. 이런 시적 자아의 성격에는 스스로 일하지 않고 농촌 생활을 여유 있게 바라보기만 했던 작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10) 황희의 〈四時歌〉의 촌사 “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나는 그물 잡고 아히는 밧줄 가니/ 뒷 피혜 엄긴 藥을 언제 키랴 흐느니(172)(黃喜, 四時歌4-1, 樂學拾零71, 진본청구영언303)”의 초장에서 시적 자아는 일이 많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물이나 잡고 지내면서 밧 갈고 약을 캐는 핵심 생산 활동은 ‘아희’에게 미루고 있다는 데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4)에서 시적 자아는 여름날 달아오른 땅에서 '밭고랑'을 매는 농민으로 나타난다. (2)의 시적 자아가 농민 가운데서도 농사를 권유하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의 시적 자아는 실제 현장에서 밭을 매는 몹시 고된 노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종장에서 이런 '辛苦'를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여 농사짓는 농민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하소연하고 있다. 辛苦함이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일반 인칭으로 표현하여 농민 일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알리고 있어서 농민을 대변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핀 14-17세기 작품에 나타난 시적 자아는 촌부, 일을 함께 하려는 농부, 일을 시키는 상전, 실제 일하는 농부 등으로 되어 있었다. 농사라는 하나의 생계활동을 중심에 두고 매우 다양한 시적 자아가 이를 각기 다른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작품에 이러한 시적 자아를 내세운 작가의 이력을 살펴보면 황희, 정철, 신계영은 정승과 같은 고관을 지냈고, 이휘일은 벼슬하지 않는 선비이기만 했다. 오랜 벼슬로 현실적 여유를 누렸던 작가는 전원의 여유나 훈민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촌부, 농부, 상전과 같은 시적 자아를 내세웠고, 은거 선비 출신인 작가는 농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기 위하여 농부를 시적 자아로 내세웠다.

다음은 17-19세기 살핀 작품에 나타난 시적자아를 살피고자 한다.

- (5) 耕田하야 朝夕하고 釣水하야 飯饌하며
 長腰의 荷鎌하고 深山의 採樵하니
 내 生涯 이 썩이라 다투라 다시 알리.(235)
 (安瑞羽, 兩棄齋散稿, 楡院十二曲(13-5): 右第四章)

- (6) 靑藜杖 힘을 삼고 南畝로 내려가니
 稻花는 훗날이고 小川魚 살져는디
 遠近에 즐기는 農歌는 곳 곳이서 들린다.(4006)
 (김천택, 주씨본 해동가요429, 가람본 청구영언283)

(7) 썸은 듣는 대로 듯고 벋은 썰 대로 썬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더서 길 가는 소님너 아는 드시 머무논고(1127)
 (魏伯珪, 三足堂歌帖, 農歌9-4)

(8) 우리 심이 드리 보쇼 산의 올라 산전 파고
 들의 나려 슈담 가려 풍한 셔습 지은 농스
 지금의 동증니증은 무삼 일고.(3078)
 (이세보, 풍아307)

(5)의 시적 자아는 밭을 갈고 낚시를 하며 전가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다. 시적 자아가 보인 행위는 농사뿐 아니라 낚시하고 나물 캐는 등 전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다. 시적 자아는 종장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가의 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내보였다. 전가를 배경으로 시적 자아는 소박하지만 자족하며 여유를 가진 촌부다.

(6)의 시적 자아는 농기구가 아니라 청려장을 짊고 南畝로 구경 가는 사람이다. 그는 거기서 벼꽃이 훑날리고 고기가 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장에서는 원근에서 즐기는 농가를 듣는다.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농사일에 개입하지 않고 다만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여 이 작품의 시적 자아는 생활의 구경꾼이다.

(7)의 시적 자아는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다. 종장에서 그는 잠시 더위를 식히려고 휴식을 취하며 바람을 쐬다. 종장에는 마침 길 가던 손님이 알아보고 잠시 걸음을 멈춘다. 직접 일하고 쉬면서 지나가는 외관 손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농부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시적 자아는 힘겨운 농사의 생활 현장에서 잠시의 휴식이라도 필요함을 생생하게 드러내서 시적 자아가 농부임을 분명히 했다.

(8)의 시적 자아는 산전을 파고 논을 갈며 농사짓는 농부다. 종장은 온갖 고생으로 농사지은 결과를 갖가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꺾박받는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생애를 통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의 결실을 수탈행위로 상실하게 되는 절박한 현실을 원망하고 있어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농민이 이 작품의 시적 자아이다.

(5)의 작가 안서우는 향리에서 벼슬하지 않고 살았던 선비이고 (6)의 작가 김천택은 평민가객이고 (7)의 작가 위백규는 향리에서 벼슬하지 않고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한 선비이고 (8)의 작가 이세보는 왕족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확고한 물질적 토대를 가진 인물이다. 안서우가 전원인을 시적 자아로 내세운 것은 만족스런 전원생활을 표현하기 위해서였고, 김천택이 구경꾼을 내세운 것은 가객으로서 자기 삶의 낭만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였고, 위백규가 농민을 내세운 것은 농사의 힘겨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였고, 이세보가 원망하는 농민을 내세운 것은 힘겹게 지은 농사의 결과를 각종 세금으로 수탈해 가는 당대 농정에 대한 비판 의식을 실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평민 가객의 낭만적 성향과 양반 사대부들의 애민 의식이 투영된 시적 자아의 등장이 이 시대 작품의 특징이다.

무명씨 작품의 시적 자아는 유명씨 작품의 시적자아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유명씨 작품에 보이지 않는 시적 자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무명씨 작가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암시해 준다.

(9) 東山에 布穀새 울고 南林에 倉庚이 운다
농부는 보리를 갈고 村婦는 썩 눈을 본다
아마도 太平한 百姓은 田家인가(1268)

(악부(고대본)965)

- (10) 녹양은 즈즌 듯 찢 듯 산 므리에 허 듯는다
설멋진 농가의 아춤 논 밷고 나니
눈 아피 萬경 옥나는 나날이 달나 가니(910)
(악부(고대본), 迎陽曲)
- (11) 비스리 등에 언고 기음 밷는 저 老翁아
비마즌 行客이 問느니 술 파는디
저 건너 杏花村이니 게 가 무러 보소서(1933)
(東國歌辭259)
- (12) 宅들에 동난지가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화 괴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 內肉 兩目이 上天 前行 後行 小아리 八足 大아리 二足 靑鬣 으스
속흔는 동난지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짓이라 허렴은(1200)
(樂學拾零532, 진본청구영언978)
- (13) 살곳곳 봉실봉실 핀 밷머리에 이라 이라하는 저 農夫야 그 무슨 곡식
을 시무라고 봄 밷을 가오/ 예주리 천자강이 오라비콩 눈썹적이 팻 녹
두 기장 청경 차조 새코 씨르기 참깨 들깨 동부 쥐눈이 찰수수를 갈라
합나 그 무엇술 스무라 하노/ 그것도 저것도 다 아니오 구곡장진 신평
미등할 때에 제일 농량에 긴한 봄보리 가오(2082)
(고대본 악부, 耕春麥)

(9)는 초장에서 동산과 남림에서 새가 우는 것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중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보리 갈고 뿜따는 농부와 村婦를 그리고 있다. 종장에서 초중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전가의 백성이 태평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적 자아는 농부와 촌부의 삶을 태평한 백성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거리를 두고 농부와 촌부를 객관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농촌 백성을 태평하다고 말한 것은 농촌을 전원으로 보고 한가함과 여유를 노래하던 사대부 작가의 입장과 상통한다.

(10)에서는 초장에 해가 돋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중장에서 시적

자아가 이른 아침에 눈을 맨다고 하여 농사를 스스로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에서 나날이 달라지는 들의 풍경을 그린 것 역시 농부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작품의 시적 자아는 농사를 직접 지으며 나날이 달라지는 들판을 보고 보람을 느끼는 농부이다. 이런 내용의 성격 때문에 이 작품의 작가는 농민의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은거 선비일 가능성이 높다.

(11)에는 김매는 老翁과 길을 묻는 行客이 동시에 등장하여 지금까지의 한 사람이 시적 자아로 등장한 여타 작품의 경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중장에 행객이 직접 질문하는 대사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묻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두 인물의 대화가 중심 내용을 이루면서도 서사적 설명이 부분적으로 곁들여져서 극적 성격과 서사적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서사적 극적 성격을 가지게 되어 시적 자아가 서사나 희곡 속의 등장인물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으며 두 인물이 이 작품의 시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12)에는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 나타났다. '동난지이'를 파는 장수와 이를 사려는 구매자 사이의 대화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 (11)과 달리 두 인물의 대화만이 전적으로 작품 내용을 이루어 극적 성격이 더 강화되었다. '거복이' 소리치며 물건을 파는 장수에게 효율적인 말하기를 가르치는 과정에 심각한 삶의 행위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졌다. 작품이 극적 구성을 하고 있어 시적 자아 역시 장수와 구매자라는 극 속의 두 인물로 나타났다.

(13) 역시 두 인물이 등장하여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12)와 같은 극적 성격을 가지는 작품이다. 다만 대화하는 두 인물이 여기서는 농부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중장에서 어떤 사람이 다양한 농작물을 두루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또 다른 농민일 수도 있다. 초장과 중장에서 예상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흥겹고 신나게 표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종장에서는 봄보리를 가는 구체적 이유를 정색하고 대답하고 있다. 그 구체적 이유가 묵은 곡식이 장차 다하고[舊穀將盡] 신곡이 영글지 않은[新穀未登] 때에 양식[農糧]을 하려 한다고 하여 농민인 시적 자아는 성격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9)에서 (13)까지 무명씨의 작품을 살폈다. (9)(10)은 농사를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기의 일로 여기고 생활하는 시적 자아가 나타나서 유명씨의 작품과 유사하다. 그러나 생활에 대하여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극적 성격의 시적 자아를 내세우고 있는 (11)(12)(13)번 작품은 유명씨들이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작품은 농촌의 생활이나 상업 활동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창작과 가창을 자유롭게 하던 평민 가객이나 풍류적 시정인의 것이 아닌가 한다.¹¹⁾ 생활의 중심이 농업이었는데 상업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 현상의 반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업을 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는 작품은 늦은 시기인 18, 19세기에 주로 창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봉건적 사회에서 생산의 중심이 여전히 농업이었기 때문에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잉여 산물이 상업 경제의 발달을 가져와 마침내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외 교역이 증대되어 가던 현상¹²⁾이 일련의 무명씨 생활 시조 문학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조동일 『앞의 책』 p.325 참고

12) 이영학,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상품 작물의 재배」, 『한국사』 33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32-68 참조.

4. 생활과 표현의 방식¹³⁾

여기서는 어떤 생활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생활을 노래하는 작가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며 이들이 어떤 시적 자아를 내세웠는가의 문제는 앞에서 살폈다. 여기서는 이들 작가가 시적 자아를 내세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생활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14) 아회야 粥早飯 다고 南畝에 일 만해라
 서투른 싸부를 늘 마조 자부려뇨
 두어라 聖世 躬耕도 亦君恩이시니라(2639)
 (조존성 약학습령212, 진본 청구영언114)

(15) 뒷 집의 술발을 꾸니 거촌 보리 말 못 춘다
 즈는 것 마고 씨어 뒤 비저 괴아 내니
 여러날 주렸던 입이니 드나 쓰나 어이리.(1341)
 (金光燬, 약학습령 255, 진본 청구영언148, 栗里遺曲17-3)

(16) 비오논디 들희 가랴 사립 닷고 쇼 머겨라
 마히 락양이라 장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스래 긴 밧 가라라(1934)
 (尹善道, 山中新曲 : 雨後謠, 孤山遺稿8, 孤山歌帖8)

(17) 西山에 헉 지고 풀 굿테 이슬 난다
 호뽀를 들너 메고 돌 되여 가자스라
 이 中의 즐거운 뜻을 널리 무슴 흐리오(2262)
 (李徽逸, 存齋集, 楮谷田家八曲 기팔: 夕)

13) 시조에 나타난 생활공간이 전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된 인물 역시 한 개인에서 다수로, 더 나아가 집단으로 확대된다. 생활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구체적 내용 역시 더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4)에 표현된 내용은 粥早飯, 南畝의 일, 따부 잡는 것, 躬耕, 君恩 등 상당히 다양하다. 일을 성격에 따라 묶어보면 죽조반이라는 아침을 먹는 일, 남무에서 몸소 밭을 갈아 따부를 잡는 일, 군은에 감사하는 세 가지 일로 요약된다. 생활을 구체적 내용에 따라 더 요약하면 농촌에서 아침 먹고 직접 일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여건을 君恩이라고 감사하는 두 가지다. 이 작품에 나타난 구체적 활동의 내용은 죽 먹고 김매는 농촌 생활이다. 어휘에서 粥早飯, 南畝, 聖世躬耕, 亦君恩 등 관습적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여 생활이 부분적 요소임을 보이는 기능을 했다. 그리고 초장에서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감탄형의 문장을 통하여 강조하고 중장에서는 의문형의 문장을 통하여 혼자임을 은근히 알리고 있다. 강조와 기대의 결과로서 종장에서는 단정적 종결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작품의 주제가 종장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죽을 먹고서라도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군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관념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하여 군은이라는 관념적 용어를 중심에 놓고 밭갈이라는 농촌 생활을 여러 일 가운데 하나로 다루었다.

(15)는 생활 가운데 농촌에서 휴식하며 술을 빚어 마시는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가져왔다. 이것은 위백규가 〈農歌九章〉의 끝 작품에서 농사일을 끝내고 술 마시며 휴식하는 모습을 담은 것과 유사하다. 술빚을 쌀이 없어서 빌리려다가 보리를 얻었으나 이를 상관하지 않고 술을 빚는다고 하였다. 종장에서 시적 자아는 술을 '여러 날' 마시지 못한 형편이라 술의 질을 따지지 않고 마신다고 하면서도 그런 정황을 매우 즐기는 시적 자아의 어조가 살아 있다. 사용한 어휘와 문장 서술의 방식에서 이런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어휘에서 '뒤비저, 주렸던, 드나 쓰나' 등의 구어는 술을 급히 빚는 것, 술을 마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였다. 문장 서술에서 이것저것 가릴 겨를 없이 급히 술을 빚는 다는 말을 중장에서 하고, 종장에서는 맛을 가리지

않는 다는 것을 설의법의 문장으로 강조하여 일과를 마치고 휴식하는 생활의 흥겨움을 박진감 있게 표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6)에는 구체적인 생활로 소먹이기, 연장 손질, 밭갈이 등 세 가지가 각 장별로 나온다. 어휘에서 명사어나 서술어가 일상생활의 구어로 되어 있어 알기 쉽다. 이런 용어의 구사는 시적 자아가 스스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 형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비가 오고 개는 상황에 따라 할 수 없는 일과 해야 할 대표적인 일 여러 가지를 초·중장에 대비적으로 명시했다. 비 오는 지금 집 안에서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초장과 중장에 대비하여 제시하고, 비가 개기를 기다리며 비 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중장에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비가 개는 여부에 따라 집 안팎에서 해야 할 일을 설의법과 명령법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율동감과 표현의 효과를 높였다.

(17)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유를 나타내고 있다. 해가 지고 이슬이 내리며 달이 비치는 시간에 돌아와도 즐겁기만 하다는 시적 자아의 태도에서 이 작품의 작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중장에서 달이 뜨거든 돌아가자는 말은 늦게까지 일하자는 말이고, 중장에서 그 중의 즐거운 뜻이라고 한 것은 일을 시키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작가 이휘일이 배굶는 농부를 진작 먹인다¹⁴⁾는 다른 작품과 이 작품을 연관해서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한편 이 작품만 두고 보면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순수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작품의 표현 세계가 더 확대된다.

이상의 작품에서 차례대로 시적 자아는 농사를 임금의 은혜로 돌리거나, 쓴 술도 흥겹게 마시며, 시대 자체를 근본적으로 좋게 보거나, 늦

14)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기을 호여/ 비골는 農夫들을 趁時에 머겨스라/ 아히야 혼 그릇 올녀라 親히 맛바 보내리라.(1794)(이휘일, 『저곡전가팔곡 기칠 : 午』, 『존재집』)

게까지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위 작품에서 일부 살폈듯이 14-17세기 작품에는 논밭을 가는 것이 생활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산나물을 캐거나 버나 풀을 베는 것이 그 다음으로 비중을 가진다. 그 외에 농사를 준비하거나 소를 먹이는 일들이 표현됐다. 그리고 이 시대 작품들은 대부분 한 수 안에 농촌의 일반적 여러 가지 생활을 모두 담아내는 방식을 반복했다. 용어는 관념적 어휘 사용에서 구체적 현실의 생활을 구어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장형태에서는 평서문이 가장 많고 차례로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평서문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초장에서 배경을 제시하거나 종장에서 자아의 의지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의문문은 어떤 사태를 강조하거나 영탄의 정서를 드러낼 때 사용하여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감탄문과 명령문은 전원의 즐거움을 나타내거나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사용했다.

18-19세기에 이르면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작품이 나타난다.

- (18) 書房님 病 들어 두고 쓸 것 업서 鐘樓 저지 달리 과라
 식 사고 감 스고 榴子 스고 石榴 샅다 아츠 아츠 이저고 五花糖을 니
 저발여고즈
 水杓에 술 소즈 노코 한숨 게워 흐노라(2200)
 (김수장, 주씨본 해동가요 540)
- (19) ㄹ을 打作 다흐 後에 洞內 모하 講信홀 지
 金風憲의 메더지에 朴勸農의 되롱춤이로다
 座上에 李尊位는 拍掌大笑 흐더라(50)
 (이정보, 약학습령, 해동가요)
- (20) 둘러 내자 둘러 내자 긴 촛골 둘러 내자
 바라기 역고를 골골마다 둘러 내자
 쉬 짓튼 긴 스래는 마조 잡아 둘러 내자(1330)
 (위백규, 삼죽당가첩, 농가9-3)

- (21) 山村에 秋夜長허니 擲梭聲이 淒涼허다
 一時나 달게 자면 徵租 索錢 어이 허리
 世間에 綺紈家 子弟덜리 저 勤苦를 思量년가(2077)
 (조황, 삼죽사류75, 삼죽이본25, 주로원격양기30-25)

(18)에는 생계 활동으로 달래를 파는 일이 나온다. 그러나 그 앞뒤로 서방의 병에서부터 감과 유자, 석류, 오화당 등의 물건, 술 꺾고 한숨 겨운 것 등 매우 많은 물건들과 정황을 한 작품 안에 담고 있다. 어휘에서 구체적 지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려는 구체적 물건 이름이 제시되었다. 이런 어휘의 사용은 생활의 구체적 현장을 생생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문장 형태에서 사실을 나열하면서 평서문을 쓰고, 잊은 것에 놀라며 감탄문을, 정서를 진술하면서 다시 평서문을 구사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물건 파는 하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 주변의 다양한 일을 현실 생활의 용어로 나타냈다.

(19)번 초장의 내용으로 보아 타작한 뒤의 행사가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다. 타작은 추수 뒤 행사의 이유를 암시하는 정도로만 그려졌다. 초장 후반은 동네 사람이 모여 향약에 따라 술을 마시고 계를 맺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중장에는 두 인물의 흥겨운 춤사위를, 종장에는 좌상객 이존위의 즐기는 모습을 그렸다. 어휘에서 메더지, 되롱춤 등의 토속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講信, 金風憲, 朴勸農, 座上, 李尊位, 拍掌大笑 등의 한문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생활의 중심이 농민이 아님을 암시한다. 문장의 측면에서 행사의 장면을 나타낸 초·중장은 감탄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그 흥겨움을 드러내고 종장은 평서형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통하여 인물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풍년과 향약의 행사, 흥겨운 뒷풀이를 바라보는 높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한 마당의 행사를 묘사했다.

(20)은 농사의 어느 한 부분을 작품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

다. 각종 풀을 협동하여 제거하는 일을 초·중·종장에서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어휘에서 ‘츄골, 바라기, 역고, 스투’와 같은 명사어 뿐만 아니라 ‘둘러내자’라는 서술어까지 생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 와서 농사짓는 현장을 생동감 있게 그리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장의 표현 방식이 일반 시조의 전아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평시조에서 보기 드문 반복법을 시종일관 사용하고 있다. 초장 안에서 반복이 이루어졌고¹⁵⁾ 이런 반복이 중·종장의 끝 부분에도 이어졌다. 특히 종장의 둘째 음보에서 엄격히 지켜야 할 음수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실제 힘 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민요가 사용하던 율격을 그대로 옮겨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민요에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¹⁶⁾ 요컨대 농민의 입장에서 여러 농사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일을 한 작품에 집중적으로 표현하여 확고한 농민시를 이루었다.

사대부들을 비롯한 조선시대 지배층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농사를 비롯한 여타 생산 활동은 (20)의 작가가 보여준 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사대부의 핵심 업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21)에서 읽을 수 있다. (21)에서는 베 짜는 일이 생산 활동의 내용으

15) 그의 다른 작품 가운데 초장에만 AABA형의 반복이 보이는 작품도 있다. “돌라 가자 도라 가자 히 지거단 도라 가자/계변의 손발 씻고 흙의 메고 돌아올 제/어되셔 우배 초적이 흙피 가자 비아는고(1248)(위백규, 삼죽당가첩 농가 9-6)”

16) 소위 AABA 형의 문장은 민요에도 흔하게 발견된다. (20)번 작가가 살았던 장성과 가까운 화순군 동북면의 민요 가운데 〈논매기노래〉를 보면 “놀다 가세 놀다 가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놀다가 가세”(최래옥·김균태 『한국구비문학대계』 6-11 전라남도 화순군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p.110)라는 표현이 보이고, 보성군 문덕면 민요 가운데 〈베 매는 소리〉를 보면 “베를 매세 베를 매세 한합두합 베를 매어보세”(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전라남도 보성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p.770.)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인근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장 형태의 민요가 많이 나타난다.

로 표현되어 있다. 먼저 어휘를 보면 山村, 秋夜長, 擲梭聲, 淒涼, 徵租, 索錢, 世間, 綺紈家, 子弟, 勤苦 등 한자어 투성이다. 현장의 생활이 지식인의 유식한 문자로 표현되어 대상화될 가능성을 높였다. 각장의 내용을 보면 산촌에서 긴 가을밤에 베를 짜야하는 이유를 증장에서 밝혔다. 베를 짜지 않고 달게 자게 되면 거두어가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장에서 시적 자아는 이와 같은 작업의 勤苦함을 좋은 옷 입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초장에서 밤 세워 베 짜는 소리가 처량하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저 근고'라고 하여 나의 일이 아닌 저 불쌍한 백성의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작품은 중요한 생산 활동으로 베 짜는 일을 사대부의 입장에서 다루면서 연민하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시적 자아를 생산자의 입장으로 대치하지 않고 생산 활동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웠다.

이 시대 작품에 나타난 생활은 앞 시대에 비하여 생활의 종류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물건을 사고팔거나, 개간, 베짜기, 물푸기, 가림주구 등 매우 구체적인 생활이 다루어졌다. 앞 시대의 작품은 농촌의 일반적 생활을 포괄적으로 한 작품 안에 담아 비슷한 내용을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아서 표현된 생활의 종류가 후반기 작품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후반기에는 일부 전반기 작품과 같은 방식을 따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작품은 다른 일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다루어 더 다양한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어휘에서 생활 현장의 구체적인 일이나 대상을 현장의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대부의 한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 경우의 두 가지가 있었다. 전자는 농민의 관점, 후자는 사대부의 객관적 관점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었다. 문장의 종류에서 앞 시대에 비하여 평서문과 의문문의 수가 더 증가했다. 이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 평서문이, 실제 질문을 하거나 반문을 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사대부 성향은 무명씨의 일부 작품에서도 연장된다. 무명씨의 구체적 성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작품이 보인 성향은 작가의 성격을 해명하는 일에 역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22) 田園의 밭출 갈고 달을 썬고 도라오니
치자는 문에 맞고 노처는 술을 든네
아마도 農村 흥미지락은 이 뿐인가.(3618)
(平洲本 雜誌440)

(23) 벼흔 불 갖치 뵈고 뻘은 비오 듯한다
山田 水田 다 말으고 五穀 百穀 싹이 탄다
비나니 上天은 數千里에 大雨를 주사 萬民 蘇生.(1783)
(가람본 가곡원류 439)

(24) 宅들에 麩脂 粉들 사오 저 장스야 네 麩脂 粉 곱거든 사자
곱든 비록 아니흐나 브르기곳 브르면 온갖 嬌態 다 나서 님 괴얌즉 흐
오니 사 불나 보오
眞實로 그러곳 흘작시면 닷 말엇치만 스리라(1201)
(악학습령106, 일석본 해동가요 543)

(25) 아희드라 나무 가즈 뵈즘방이 드넌 처 신들 메고/ 닷 가라 허리에 차고
독귀 버려 드러 메고 茂林山中 드러가서 마른 썩 삭다리를 뷘거니 버
히거니 지게에 질머 노코 식음을 츠즌 點心도 슬부쉬 오오고 곱방디
썩러 입담비 푸여 물고 노리 부르며 잠을 드니/ 이윽고 夕陽이 지 님
거늘 엇씨를 추우즈며 이아 동무야 어이 같고 흐노라(2630)
(박씨본 시가709, 興比賦430)

(26) 고 아희눔 디답허난 말이 우리도 사쥬팔자 기박하여 남의 집 뵈사리
허난고로 한달 히고 설흔 날의 원음식 여순 그릇 설 언저 노코 나지면
낭글히고 저역이면 시끼 썩고 식전이면 쇼물을 일적이 머겨 뵈 山 두
메가 나무 두세 번 히다 늦코 저녁나잘 설 참의 눈뵈 같고 술 담뵈 것
드려 一年 열두달의 數百餘本 먹은 후의 히 다 저 저문 날의 兩親父母
奉氣 奉養호고 곱흘블 압헤 안저 스투룬 諺文짜나 쓰더 보난 고로 傳

혈지 말지.(2020)

(調 및 詞)(종장)

(22)의 초장에는 발갈이를 하고 늦은 시간에 달을 보며 돌아오는 사람이 시적 자아로 나온다. 종장에서 어린아이와 노처가 맞이하는 내용을 말하고 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농촌의 흥미지락이라는 판단을 드러냈다. 흥미지락의 구체적인 내용인 어린아이와 노처의 마중은 사대부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던 歸去來辭의 이미지¹⁷⁾를 시조로 표현한 것이다. 어휘에서도 전원, 치자, 노처, 농촌, 흥미지락 등 사대부들이 즐겨 읽던 기존 문헌의 용어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의식을 나타내는 기반으로 삼았다. 농사인 발갈이는 초장 첫 구에 부분적으로 나오고 농촌의 낭만적인 정경이 중심을 차지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처지이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겠으나 이 작품의 작자는 사소한 일상을 접하면서 흥미지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된 기법은 典故 引用이다.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할 정도로 한미한 현실을 낭만적 과거 현실로 치환한 것은 관념적 사대부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평서문으로 일관하여 관념적 인식을 심리적 동요 없이 잔잔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23)에서는 가뭄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오곡과 백곡의 싹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종장에 오면 시적 자아는 만민의 소생을 위하여 상천에게 대우를 내려 달라고 빌고 있다. 종장에 보이는 治者의 행위도 현실의 농사를 위하여 나왔다는 점에서 가뭄이라는 현장의 문제가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에서 초장을 제외하고 중·종장에는 山田, 水田, 五穀, 百穀, 上天, 數千里, 大雨, 萬民蘇生 등 한자어

17) 「歸去來辭」(陶潛)의 '집을 쳐다 보니 기쁘고 분주하다. 종이 환영하고 어린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네(乃瞻衡宇 載欣載奔 僮僕歡迎 稚子候門)'라는 구절은 전원에 돌아오는 흥겨움을 표현한 것이다.

를 주로 사용하여 사대부적 취향을 드러내는 바탕을 만들었다. 문장 형
대상 상황 제시의 평서형 문장에서 영탄적 기원의 말을 구사하여 현실
의 심각성을 백성을 대신한 사대부적 시적 자아는 더욱 분명히 인식하
고 있다.

생활이 다루어진 무명씨의 작품에는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대부적
관점에서 쓰인 작품이 있는 한편에 전혀 이질적인 성격의 작품이 있다.
(24)가 그 중의 하나다. 이 작품은 연지와 분을 팔고 사는 과정을 집중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초장에 연지와 분을 사라는 장수와 이를 사겠다는
손님을 배치했다. 중장에서는 연지와 분을 사야 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종장에서 결국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의 말이 나온다. 연지
와 분이라는 물건을 사고파는 내용 하나만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반적 생활을 한 작품 안에 평범하게 나열하던 앞 시대와는 분명한 차
이를 보여 주고 있다. 어휘가 시정에서 쓰이는 일상어 중심이어서 생활
현장을 드러내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장 역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구어체를 구사하여 현장감을 더욱 높였다.

(25)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 다루고 있는 생활의 내용이 뿔 나무를 하
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활과 관련된 것, 나물 캐기, 고기잡이 등이었는
데 여기서는 나무하기가 생활의 중심이다. 초장에서 나무를 하러 나
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중장에 오면 낫과 도끼, 지게 등을 갖추어 나무
를 하고 점심 먹고 담배를 피우고 노래 부르고 잠을 자는 등 다양한 생
활이 제시되어 있다. 종장에서는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돌아오는 내용
으로 되어 있다. 뿔감 채취라는 하나의 일만을 집중적으로 보이면서 지
금까지의 작품과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을 택했다. 매우 다양한 사실들을
길게 나열해 나가는 사실시조에 유희적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재미와
흥겨움을 드러내고 구체적 생산에 참여하던 나무꾼의 구체적 현실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어휘에서 일상어를 사용하고 문장에서 생활

의 구체적 일들을 길게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생활 현장과 거기서 나타나는 시적 자아의 꾸밈없는 서민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26)은 어떤 사람이 '우리 님'에게 고기를 잡아 전해 달라고 '다방 머리 아희놈'에게 부탁하고 이를 거절하는 내용으로 된 작품의 종장이다. 심부름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농사 일이 표현되었다. 나무하기, 새끼 꼬기, 소먹이기, 나무하기, 논밭갈이 등의 농사의 주된 일들이 망라되어 있다.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말하여 일반적인 생활 전반을 나열했다. 작품 끝부분에 數百餘本, 兩親父母奉氣奉養, 諺文 등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 모두 생활 현장의 구어를 구사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을 재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실을 나열하여 구성상으로는 병렬의 문장을 사용하고 종결 방식은 평서문형을 사용했다.

무명씨의 작품에는 전기의 작품에 나타난 생활의 종류와 그 수가 비슷하다. 그러나 논밭갈이, 김매기, 벼베기 등의 일반 생활에 옷 만들기, 물건 장수와 같은 구체적 생활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났다. 일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을 포괄하여 표현하는 전대의 방식을 따르는 경우는 다소 적었고,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일을 집중적으로 노래하는 후대의 방식을 따르는 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무명씨의 작품이 시조 문학사의 전·후대에 걸쳐 있으면서도 후대에 더 많이 창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그리고 어휘에서 전통적 한자어보다 생활의 구어들이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어 생활의 현장을 매우 실감나게 드러내는 구실을 했다. 문장의 종류에서 평서문과 명령문이 다 같이 가장 많다. 장수와 구매자 사이의 대화에서 명령문이, 작품 내적 배경이나 시적 자아의 정서를 나타내는 과정에 평서문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의식주에 필요한 물질의 생산에 관련된 생활이 시조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시조는 사대부 계층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그런 시조에 삶의 물질적 토대가 되었던 구체적 생산의 현실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유교 학문이나 유교 윤리, 강호자연의 생활과 같은 관념적 세계와 달리 구체적 현실일 수밖에 없는 생산 관련 생활이 사회 체제의 필연적 근거였기 때문에 시조를 이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일은 시조 작품이나 작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고 보았다.

먼저 생활을 담고 있는 시조 작가의 성격을 시대적으로 살폈다. 전체 작품의 작가는 크게 유명씨와 무명씨의 작가로 나누어졌다. 유명씨는 사대부 계층과 평민 가객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대적으로 14-17세기에는 사대부 작가가 중심이었고 18-19세기에는 평민 가객층이 새로운 작가층으로 부상하여 사대부 작가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평민 가객이 우위를 점하고 무명씨가 대거 참여하였다. 무명씨의 작품은 작품의 성격으로 보아서 사대부 작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평민 가객층과 시정인의 성향을 보이는 작품도 있었다. 따라서 무명씨는 사대부와 평민 가객, 시정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시적 자아의 입장을 살폈다. 14-17세기 작품에 나타난 시적 자아는 촌부, 일을 함께 하려는 농부, 일을 시키는 상전, 실제 일하는 농부 등으로 되어 있었다. 농사라는 하나의 생계 활동을 매우 다양한 시적 자아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그려 보였다. 시적 자아를 작가와 관련시켜 보면 황희, 정철, 신계영은 정승과 같은 고관을 지냈고 이휘일은

벼슬하지 않는 선비이기만 했다. 오랜 벼슬로 현실적 여유를 누렸던 작가는 전원의 여유나 훈민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과정에 생활을 다루었고 은거 선비 출신인 작가는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 생활을 작품에 담았다.

18-19세기 작품에 나타난 시적 자아에서 먼저 안서우가 전원인을 시적 자아로 내세운 것은 만족스런 전원생활을 표현하기 위해서였고, 김천택이 구경꾼을 내세운 것은 가객들이 가졌던 낭만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였고, 위백규가 농민을 내세운 것은 농사의 힘겨운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였고, 이세보가 원망하는 농민을 내세운 것은 힘겹게 지은 농사의 결과를 각종 세금으로 수탈하는 그릇된 농정에 대한 비판 의식을 실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평민 가객의 낭만적 성향과 양반 사대부들의 애민적 의식이 투영된 시적 자아의 등장이 이 시대 작품의 특징이다.

무명씨의 일부 작품에서는 농사를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기의 일로 여기고 생활하는 시적 자아가 나타나서 유명씨의 작품과 유사하다. 그러나 생활을 두고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극적 성격의 작품에서 두 인물을 시적 자아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농촌의 생활이나 상업 활동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잘 이해하면서 창작과 가창을 자유롭게 하던 평민가객이나 풍류적 시정인이 무명씨 작가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생활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을 살폈다. 14-17세기 작품에는 논밭갈이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산나물을 캐거나 벼나 풀을 베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 외에 농사를 준비하거나 소를 먹이는 일들이 표현됐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한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생활을 동시에 담아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루어 농촌의 일반적 생활이 주로 개괄적으로 나타났다. 어휘상 관념적

용어를 쓰고는 있으나 생활을 구어로 표현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활을 표현하는 문장형태에서는 평서문이 가장 많고 차례로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평서문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초중장에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일을 제시하며 종장에서 자아의 의지나 정서를 표현하려는 데서 연유했다. 의문문은 어떤 사태를 강조하거나 영탄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다. 감탄문과 명령문은 전원의 즐거움을 나타내거나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사용했다.

18-19세기 작품에 나타난 생활은 앞 시대에 비하여 더 구체적이고 다양했다. 물건을 사고팔거나, 산전이나 수전의 개간, 베풀기, 물푸기, 가렴주구 등 매우 구체적인 일들이 표현되었다. 앞 시대의 작품들이 농촌의 일반적 생활을 포괄적으로 한 작품 안에 담아 표현한 경우가 많아 담고 있는 생활의 종류가 후반기 작품에 비하여 적었다. 후반기의 일부 작품은 전반기 작품과 같은 방식을 따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작품은 작품마다 하나의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이 시대의 작품들이 전체적으로는 더 다양한 생활을 구체적 현장의 말로 표현하였다. 어휘상 앞 시대에 많이 쓰이던 한자어와 같은 관념적 용어의 사용 빈도수가 줄어들고 농업이나 상업의 생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구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장의 종류에서 앞 시대에 비하여 평서문과 의문문의 수가 더 증가했다. 현실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 평서문이, 실제 질문을 하거나 반문을 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 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무명씨의 작품에 표현된 생활의 종류는 전기의 작품에 나타난 생활의 그것과 그 수가 비슷하다. 그러나 논밭갈이, 김매기, 벼 베기 등의 전통의 일반 생활에 옷 만들기, 물건 장수와 같은 구체적 생활이 부가적으로 더 표현됐다. 일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하나의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을 포괄하여 표현하는 전대의 방식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일을 집중적으로 노래하는 후대의 방식을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후대적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무명씨의 작품이 전·후대에 걸쳐 있으면서도 후대에 더 많이 창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다. 어휘에서 관습적 한자어보다 구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 생활 현장의 생동감 있는 장면을 재현하였다. 이는 무명씨 작품이 비교적 후대에 더 많이 창작되었음을 알리는 또 다른 징표가 된다. 그리고 문장의 종류에서 평서문과 명령문이 다 같이 가장 많았는데 장수와 구매자 사이의 대화에서 명령문이, 작품 내적 배경이나 사실의 나열, 시적 자아의 정서를 나타내는 과정에 평서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박인로 『노계집』(원전) 윤선도 『고산유고』(원전) 이세보 『풍아』(원전)
 정 철 『송강집』(원전) 조 황 『삼죽사류』(원전) 주세붕 『신재전서』(원전)
 김기현, 「김광옥론」, 『한구시조작가론』(원용문 편), 국학자료원, 1999. pp.351-367.
 김명길, 「이정보론」, 『한구시조작가론』(원용문 편), 국학자료원, 1999. pp.461-484.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pp.1-339.
 김상진, 「김득연의 〈산중잡곡〉 재조명-연작시조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 연구』 제16집, 한국시가학회, 2004. 8. pp.189-217.
 김상진, 「신계영의 〈전원사시가〉 고찰-除夕의 의미를 중심으로-」, 『시조학론총』 제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1. pp.113-137.
 김상진,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pp.1-299.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2. pp.1-190.
 김성면, 「이정보 애정류 사설시조의 구조 고찰-성적 내용을 다룬 세 작품을 대상으로-」, 『시조학론총』 제21집, 한국시조학회, 2004. 7. pp.271-284.
 김용찬, 『18세기 시조문학과 예술사적 위상』 월인, 1999. pp.1-378.

- 김용찬, 「김유기의 작품세계와 18세기 가곡 전승의 양상」, 『시조학논총』 제17집, 한국시조학회, 2001. pp.149-179.
- 김용섭, 「조선 후기 사대부 시조의 연구-강호시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6. pp.1-71.
- 김창규, 『노계 시문학 논고』 박이정, 2006. pp.1-392.
- 남정희, 「이정보 시조 연구 -현실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가학회, 2000. 8. pp.233-252.
- 박노준, 「이세보 시조의 관료 비판과 위민 의식」, 『시조학논총』 제13집, 한국시조학회, 1998. 2. pp.31-55.
- 박요순, 『윤선도론』, 『한국문학작가론 1』(황패강 외 공저), 형설출판사, 1977. pp.313-326.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상·하, 아세아문화사, 1992. pp.1-1911.
- 박천호, 「김수장론」, 『한국시조작가론』(원용문 편), 국학자료원, 1999. pp.435-460.
- 신영명, 「17세기 강호시조에 나타난 '전원'과 '전가'의 형상」, 『한국시가연구』 제6집, 한국시가학회, 2000. 2. pp.141-162.
- 신연우, 『조선조 사대부시조문학 연구』 박이정, 1997. pp.1-302.
- 양순필, 「이덕일론」, 『고시조작가론』(한국시조학회편), 백산출판사, 1986. pp.189-209.
- 오종각, 「이세보의 연시조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8. pp.345-372.
- 원용문, 「이명환론」, 『속·고시조작가론』(한국시조학회편), 백산출판사, 1990. pp.211-236.
-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pp.1-317.
- 이영학,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상품 작물의 재배」, 『한국사』 33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32-68.
- 전재강, 「노계 <오륜가>의 당위적 지향과 현실적 표현 양상」, 『문학과 언어』 제10집,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9. pp.127-147.
- 전재강, 「도산십이곡의 이기론적 근거와 내적 질서 연구」, 『어문학』 제70집, 한국어문학회, 2000. 6. pp.217-241.
- 전재강, 「불교 관련시조의 사적 전개와 유형적 특성」, 『한국시가연구』 제9집, 2001. 2. pp.339-361.
- 전재강, 「도가 관련 시조의 작자와 주제 문제」, 『어문학』 제73집, 2001. 6. pp.445-470.
-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 제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3. pp.491-516.
- 전재강, 「이정보 시조의 성격과 배경」, 『우리말글』 제35집, 2005. 12. pp.179-207.

- 전재강, 『사대부시조작품론』 새문사, 2006. pp.1-364.
진동혁, 『김천택론』, 『속·고시조작가론』(한국시조학회편), 백산출판사, 1990.
pp.317-332.
최동원, 『김진태론』, 『고시조작가론』(한국시조학회편), 백산출판사, 1986. pp.345-359.

<Abstract>

A study of the classic Sijo(時調) concerning the productive life

Jeon, Jae-Gang

The main industry of the Chosun dynasty was farming, which was related to the people's lives in every respect. By the end of the Chosun dynasty commerce was a new industry becoming increasingly more beneficial. I study how these two industries were being expressed in the classic Sijo. The classic Sijo is a main literary genre created by the upper-class. Even though industry was very important for sustaining the Chosun dynasty, Confucian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members of the upper class) didn't actually work in the industries of farming and commerce. But sometimes they returned to their rural hometowns, because they owed large amounts of land which they let the servants farm for themselves. As the main composers of Sijo were these Confucian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I study a collection of their Sijo which expresses the life of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analyze several sides of the classic Sijo : for example, its writers(along with their personalities)

throughout different periods; the point of view of persona; and the specific life of industry and the way it is expressed in the Sijo.

First, I look at the writers of the different periods and their personalities. During the fourteenth century to the seventeenth century, the main writers of Sijo on the life of farming were Confucian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main writers of Sijo on the life of farming were Confucian scholars, government officials, and also commoner singers—the unnamed writers.

Second, I look at the point of view of persona. During the fourteenth century to the seventeenth century, the personas were the country man(one's lord and master) and the farmer, who was of two kinds of people : i.e., those trying to work together and those really working together.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personas were the country man, who was satisfied with his rural life as overseer to farming, and two kinds of farmers : those who farmed very hard by themselves, or those who criticized the failed tax system.

Third, I discuss the specific life of industry and the way it is expressed in the Sijo. During the fourteenth century to the seventeenth century, the writers of Sijo expressed, in a general way together in one Sijo, different kinds of work : for example, plowing a dry field and a rice field, picking wild vegetables, and cutting rice and weed.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writer of Sijo expressed different kinds of work in a more specific way, each in its own Sijo : for example, buying and selling, bringing

land under cultivation for farming, weaving, digging for water, and heavy taxation.

I look at three aspects of Sijo concerning industry, but there still remain several aspects of Sijo to study, such as those concerning worship of the king, and those concerning high officials, the common people, and the being of things.

Keywords : The expression of the productive life, The writers social personality, persona, upperclass, commonersingers, civilian, countryman, farmer.

논문투고일 : 2006년 11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월 7일